

광양항 운영, 항만공사로 전환 되면...

정부 재정지원 중단...존폐 기로

각종 인센티브 폐지 물동량 유치 더 어려워져 3-2단계 개발 끝나는 2011년까지 지원 필요

정부가 오는 2009년 광양 컨테이너 부두 운영 주체를 항만공사로 전환하면 가뜩이나 침체된 광양항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출연금 지원 중단과 화주나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양항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항만공사로 전환되면=지난 2006년 광양항의 자체수입은 419억원이었다. 같은 해 전체 광양항 운영비 2천900억원의 내역은 정부 출연금 800억원, 차입금 834억원, 자산운용금 848억원에다 자체수입을 더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광양항 운영비로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양항 운영의 항만공사 전환은 곧 정부 재정지원 중단도 의미한다. 항만공사로 바뀌면 이미 체제 전환을 마친 부산·인천·울산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광양항의 연간 전체 운영비 가운데 정부 출연금이 3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항만공사 전환시 심각한 운영난을 겪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광양항은 최근 국내 물동량 추이에 따라 일본과 가까운 부산항, 중국에 근접한 인천항에 비해 현격하게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여기에서 광양항 항적물량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 동북부의 물동량도 상하이 양산항 가동과 함께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의 물류 변동으로 이중 삼중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여서 항만공사로 조기 전환하면 광양항은 존폐의 기로에 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

항만공사 전환시 부두개발 등을 위해 사용했던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부채 1조 1천억원의 처리문제도 골치다. 정부가 일정 부분 부채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광양항 연간 운영수입이 400억원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부채 상환문제는 항만 활성화화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최소 2011년 이후, 300만TEU 때까지 보유해야=2009년 광양항만공사 전환 방침을 전해들은 전남도와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 관계자들은 "정

부가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두 포트(Two Port)로 육성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광양항만공사 전환을 최소한 2011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1년은 정부 예산으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3-2단계 개발을 끝내도록 계획돼 있는 시점이다. 전체 개발사업을 마무리 할 3-3단계 사업은 민자로 추진되는만큼 적어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2011년까지라도 광양항의 원천적인 경쟁력을 유지해달라는 차원에서 나온 요구다.

여기에는 현재 13개 기업이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로 전환돼 인센티브가 폐지될 경우 기업 유치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혁신 한마당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장 박홍석)와 광주시, 전남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광주-전남 상생의 빛-2007 지역혁신 한마당' 개막식이 4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렸다. 개막식 직후 전남도청 1층 지하체육관에 전시된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자동차를 박광태 광주시장이 시승하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전남무역 회생 가능성 없다”

“조직·수익률 비효율적 구조...청산 바람직”

자치경영평가원 경영진단 중간보고

일본 돼지고기 중계무역으로 15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전남무역에 대한 경영진단 중간평가 결과 존속보다는 청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의 의뢰로 지난달 14일부터 전남무역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전남무역은 조직과 수익률 면에서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다,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해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4일 중간보고를 통해 '전남무역의 조직이 인력규모에 비해 팀의 수가 많고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재 직원들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치경영평가원은 전남무역의 경영에 대해서는 지난해 71억 3천만원, 지난 2005년에는 4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매출대비 총이익률이 지난 4월 현재 2% 수준에 불과, 지역경제와 국내 경제에 기여한 측면이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외부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96년 설립된 전북무역이 부실경영으로 43억 원의 빚을 지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 전남무역과 같은 제 3섹터방식의 기관이 초기 역할을 다했을 경우 민간이 그 역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한다면 전남무역의 계속운영가치는 마이너스 2백29억8천여 만 원이지만 청산가치는 이보다 큰 마이너스 1백30억9천5백여만 원으로, 전남무역을 계속 운영할 기보다는 청산하는 것이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이에 따라 ▲현재 상태 유지와 ▲전남무역의 공익성 부분만을 떼어내 따로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완전 청산하는 방안 등 모두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각 주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달 13일 최종 결론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영진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청산 또는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4기 민선자치 1년

성공 사례로 본 자치 희망

고흥군 '우주 산업' 중동 자본 유치 광주 남구 '孝' 브랜드화 인지도 높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치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희망의 싹도 솟아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는 눈여겨볼만 하다.

완도군 'e-doctor' 행정 신뢰도 높여 광주 서구 '365 민원봉사' 전국서 견학

남도의 작은 자치단체 고흥군이 최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군 단위로는 드물게 아랍의 석유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고흥군은 지난 6월 11일 고흥종합문화관에서 10여개국 전문가, 투자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고흥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흥군은 '두바이 인텍스 홀딩스'와 아랍에미리트 기업 등과 함께 고흥에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이탈리아 우주항공 전문가인 '아네스토 발도타' 박사를 투자 자문관으로 위촉해 관련 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고흥군에 건설중인 나로우주센터는 지역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발상이다.

광주 동구가 '추억을 판다'는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한 '중장로 축제'는 개최 3년 만에 기초단체로서

는 치르기 힘든 대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70·80년대의 아련한 추억을 컨셉으로 한 축제는 도심공동화로 텅빈 충장로 일대를 복원거리게 했다.

광주 남구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효'라는 추상적인 아이টে임을 브랜드화해 전국적인 인지도와 공신력을 창출했다. 효사랑 관련 조례 제정과 각종 브랜드 구축사업은 현대사회에서 효를 행해 접목시켜 삶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금을 적립했고, 지난 해에는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완도군은 '희망의 e-doctor' 사업을 통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낙도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크게 기여해 주민들의 감동을 불러왔다. 군은 보건진료소와 대도시 종합병원간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만들고 응급 후송선박인 '나르미

선'을 운영해 낙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후송 치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함평군은 'e-shop+행정고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최첨단 행정을 선보였다. 이는 함평군의 인터넷 소포털 사이트 고객과 부서별로 관리하는 행정고객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행정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객만족과 농특산물 판매촉진, 시책 및 관광홍보 효과 등을 동시에 거둘 수 있었다.

광주 서구의 '상무지구 365민원봉사실'은 연중 무휴(밤 10시까지)로 시민들에게 각종 민원서류 발급, 세무·법무상담, 금융서비스(광주은행과 협약)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서구청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혁신브랜드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지자체 민원 담당자들의 견학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주민들이 구정에 산화되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투명한 처리를 가능케 해 전자식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끝>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문화전당 문광부 설계 수용키로

문화중심도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광주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4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제11차 회의를 갖고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광주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

연석회의는 그동안 지하위주의 설계를 통해 논란이 됐던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과 관련, 문광부의 설계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역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해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또 문화전당 운영 프로그램이 교육·연구 기능에 치우치지 않고 문화 향유 차원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대거 포함하도록 문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의 공연 기능 활성화를 위해 외곽주차장 건설을 반드시 추진토록 권고할 예정이며,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문화

산업단지 조성 등도 종합계획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서정훈 연석회의 간사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차례에 걸쳐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벌여 서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번 연석회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초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켰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연석회의에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민예총 광주시지회, 예총 광주시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동구 비상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9개 시민·사회·문화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청각을 보듬어 줍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par.co.kr
1588-8499 080-222-0100